

공영민 고흥군수, 고흥군수협 마른김 검사소 등급제 시연회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 국제거래소 설립 등 운영방안 논의 2년간 59억 투입 작년 2월 품질검사소·저온 유통시설 건립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20일 고흥군수협 마른김 검사소의 등급제 시연회에 참석해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한국김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마른김 검사소 등급제 운영 상황과 국제거래소 설립 등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흥군수협 마른김 품질검사소는 마른김의 등급제를 도입하고, 종합 물류기지를 구축해 생산부터 가공, 수출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고흥김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다.

고흥군과 전남도, 고흥군수협은 지난 2년 동안 총 59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2월 품질검사소와 저온 유통시설을 건립했다.

고흥은 전국 최대의 김 생산지로, 연간 10만 톤의 물김과 2천5백만 속의 마른김을 생산하고 있다. 고흥 특산품 김은 양질의 제품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지만, 고품질시장 진출과 물류기지 확보, 가격결정력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흥군은 마른김 품질검사와 자체 등급제를 실시해 전남지역의 광역 거점형 마른김 품질검사·유통센터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김 식품화를 통해 세계 김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고흥김 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직접 찾아와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국산 김 산업의 중심지가 될 고흥군수협 마른김 검사소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우리 고흥군도 고흥김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고흥김의 고부가가치화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관광’ 관광에 순천을 담다

순천시, 모든 자원 복·융합하여 관광으로 이어지는 데 총력



가든스테이 캐빈동캐빈하우스는 숙박과 업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올해 정부 관광산업 정책의 가장 큰 화두는 ‘지역 관광시대 구현’과 ‘관광자원 융복합’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아, 지역 특색을 살린 자원을 융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다.

생태와 정원이라는 독보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순천시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정원을 넘어 음식, 인프라 등 모든 자원을 복·융합하여 관광으로 이어지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순천만 대자연의 선물, 흑두루미 탐조 여행**

순천에서는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진다. 천연기념물 228호,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의 월동 모습이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너도나도 관광지 개발에 앞설 때, 순천시는 순천만의 원시성을 강조하고 자연성을 지켜왔다. 이에 화답하듯, 올해 순천만을 찾았을 흑두루미는 7,200여 마리로 역대 최대 개체 수를 갱신했다.

올해, 시는 순천만 대자연의 웅장함과 감동을 관광객에게 선사하고자 한다. 생태관광 마니아를 위해 흑두루미의 먹이활동을 관찰하고 순천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상품화할 계획이다.

선진국에서 탐조는 최고급 레저활동이라고 한다. 시는 2월, 흑두루미 탐조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계절별로 변화하는 순천만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는, 오직 순천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품격 탐조여행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 (위케이션×관광) 정원으로 출근! 정원 위케이션 in 순천

시는 정원박람회 이후 지역의 새로운 먹이를 위해 위케이션 운영 준비에 한창이다. 순천형 위케이션의 차별점은 휴식·관광·일·숙박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적화되어 원스톱 스테이-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60만평의 정원에서 특별한 하룻밤을 선사했던 가든스테이를 위케이션 센터로 탈바꿈한다. 레스토랑은 공유 오피스, 캐빈하우스는 숙박과 업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근 순천만에코촌과 연계하여 업무 몰입도에 따라 다양한 사무공간과 숙박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시는 위케이션 이용자를 위해 ▲순천 매직팩스 ▲웰컴키트 ▲체험시설 쿠폰북 등 각종 혜택을 마련하고 ▲정원 웰니스 프로그램 ▲순천만 철새 탐조 등 순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위케이션 센터 오픈을 목표로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캠퍼를 실시해 단체 이용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음식×관광) 여행의 맛, 순천 미식여행

여행업계에서 제시하는 2024 관광트렌드 중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미식여행’이다. 오직 맛있는 음식을 목적으로 끼거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이 증가한 것이다.

시는 이러한 경향에 발맞춰 오는 4월 순천의 맛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순천 미식주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5일간 진행되는 행사는 관내 인증 맛집을 알리고 영화 콘텐츠와 융합하여 맛의 세계를 소개하는 ‘순천 미식회’를 비롯해 주별별 전시관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중국 운남농업대 차(茶)산업 국제 교류 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넘어 한국차 세계 시장 진출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

보성군은 지난 20일 중국 윈남성 운남농업대학교에서 대한민국 보성군과 중국 운남농업대학교가 양국의 차(茶)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茶)산업 국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임용민 보성군의회위원장, 조계돈 기획예산실장, 김종남 문화관광과장, 허호형 인구정책과장, 손연지 차산업팀장 등 보성군 관계자 20명이 참석했다.

운남농업대학교 측은 리우허 운남농업대학교 총장, 주야오순 대외협력교류처 처장, 윈난 차대학 당위원회 서기, 왕비이취안 차대학 학장, 공위안선 차대학 부서기, 리자화 차대학 부학장, 주홍걸 교수 등 12명이 함께했다.

운남농업대학교는 1,884명의 교수진과 77,2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윈남성의 지방 거점 종합대학으로 차(茶)를 비롯한 여러 생물 자원을 연구해 차 게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보이차에 대해 심층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중국의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차(茶)산업 대표 주자인 보성군과 중국 보이차의 산지인 윈남



농업대학교는 차 재배, 가공, 유통 단계의 기술을 전달받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후발 효과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에 나선다.

특히, 양국에서 열리는 차(茶) 축제와 박람회 등에 참여해 차 문화를 교류하고 운남농업대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도모해 상호 우의 증진과 공동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중국 운남농업대와 차(茶)산업 교육 협력과 차(茶)문화 교류를 통해 보성차의 파이를 키우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한국차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력순기자

광양시,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광양시는 무공해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통해 친환경 수소 경제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4년 수소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1차 지원대상은 고상버스 3대로,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차종은 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로, 대당 3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사전 협의의 법인을 우선 지원하고 신청은 이달 22일부터이다.

수소버스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제조·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판매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기동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사용금지 품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

전라남도